광주FC 3연승 질주 … 최하위서 9위로 ‘점프’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1 27라운드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둔 뒤 관람석의 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1, 성남FC와 홈경기 골키퍼 윤평국 선방쇼에 김주공·헤이스 연속골 2-0 승리

광주FC가 승리의 DNA를 깨웠다.

광주는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1 2021 27라운드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김주공이 선제골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헤이스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그리고 후반기 기회를 얻은 골키퍼 윤평국이 두 경기 연속 선방쇼를 펼치면서 승리를 완성했다.

이와함께 광주는 2연패 뒤 3연승을 내달리면서 최하위에서 9위까지 점프했다.

앞선 대구전에서 엄지성과 여봉훈이 ‘골맛’을 보면서 역전승을 만들어냈고, 이날 경기에서는 김주공이 시즌 3호골을 만드는 등 광주는 득점 다변화 고민을 푸는 등 3연승 결과는 물론 과정도 만족스럽다.

김주공은 전반 35분 머리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이순민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김주공이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했고 이내 성남의 골망이 출렁거렸다.

김주공은 후반 37분에도 좋은 장면을 연출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헤이스가 올린 공을 트래핑 한 뒤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골대를 갈랐다. 하지만 아쉽게 트래핑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을 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득점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멀티골에는 실패했지만 김주공까지 살아나면서 광주는 다양한 공격옵션으로 남은 시즌을 풀어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여전한 헤이스의 활약도 반갑다.

헤이스는 1-0으로 앞선 후반 17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시즌 3번째 골을 만들었다.

좋은 킥으로 페널티킥, 코너킥 상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헤이스는 공격은 물론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광주의 핵심 멤버로 자리를 굳혔다.

골키퍼들의 뜨거운 경쟁도 광주에는 전력 플러스가 되고 있다.

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골키퍼 윤보상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이진형이 노련함으로 어필했고, 이번에는 윤평국이 슈퍼세이브쇼를 펼치면서 3연승의 주역이 됐다.

앞선 대구 원정에서 연달아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김호영 감독으로부터 ‘MVP’로 꼽힌 윤평국은 성남과의 경기에서도 상대의 예리한 공격을 잇달아 막아내면서 무실점 승리를 만들었다.

1-0으로 앞선 전반 막판 뮬리치가 머리와 발로 연달아 광주 골대를 겨냥했지만 윤평국을 넘지 못했다.

윤평국은 후반 9분에는 홍시후의 강력한 터닝슛을 막아내면서 성남의 기를 꺾었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성남은 후반 15분 페널티 지역에서 핸드볼 파울을 기록하면서 광주에 페널티킥을 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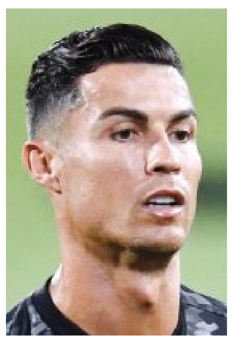
또 핸드볼 파울을 범한 권경원은 앞선 전반 20분에도 경고를 받았던 만큼 경고 누적으로 퇴장됐고, 광주는 수적 우위 속에 2-0 무실점 승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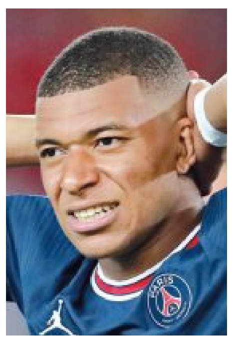
‘막내’ 엄지성이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엄원상도 그라운드로 복귀해 스피드를 과시하면서 광주가 순위싸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는 PSG로 음바페는 레알로 여름 연쇄이동?

영국 스카이스포츠 보도


호날두


음바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와 킬리안 음바페(23·파리 생제르맹), 두 ‘슈퍼스타’가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연쇄 이동’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스포츠 전문 방송 스카이스포츠는 25일(한국시간)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에이전트가 호날두와 음바페의 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과 계약이 2022년 여름까지인 음바페는 구단의 재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PSG에 음바페 이적료로 1억6000만 유로(약 2191억원)라는 거액을 제시했다.

PSG는 아직 레알 마드리드의 제의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곧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게 꿈이라고 말해왔다. 음바페는 올여름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겠다는 뜻을 이미 PSG에 밝혔다.

음바페는 2017년부터 PSG에서 174경기에 출전해 133골, 63도움을 기록했다. 리그1에서 3차례 우승한 것을 포함해, 총 11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런 음바페의 빈자리를 호날두가 메울 전망이다.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유벤투스 감독은 정규리그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날두는 내게 머물겠다고 말했다. 그의 거취는 분명히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스카이스포츠는 “호날두가 아직 유벤투스에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단이 호날두를 데려간다면 굳이 막지 않겠다는 게 유벤투스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호날두가 유벤투스를 떠나 PSG에 합류한다면 축구 역사상 최강의 공격진이 꾸려질 전망이다.

브라질 특급 네이마르를 보유한 PSG는 지난 11일 ‘축구의 신’으로까지 불리는 리오넬 메시를 영입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여기에 지난 10여 년간 메시(6회)와 함께 발롱도르를 나눠 가지다시피 해온 호날두(5회)까지 품으면, 그야말로 ‘꿈의 스리톱’을 가동하게 된다.

/연합뉴스

얼마만이냐…양현종, 다시 빅리그 마운드 오른다

좌완투수 양현종(33)이 다시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은 25일(한국시간) “양현종과 내야수 라이언 도로우, 좌완투수 제이크 라츠를 콜업했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곧바로 26인 로스터에 포함됐다.

양현종이 MLB에 복귀한 건 지난 6월 17일 로스터에서 제외된 뒤 69일 만이다.

양현종은 올 시즌 초반 MLB에서 3패 평균자책점 5.59의 성적을 기록한 뒤 6월 17일 로스터에서 제외됐고, 18일 방출대기 조처됐다.

그는 국내 복귀 대신 다시 도전의 길을 택했다. 트리플A팀인 라운드 록 익스프레스 유니폼을 입고 이를 꽉 깨물었다. 마이너리그에서도 빼어난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 지난 21일 불펜투수로 등판하는 등 10경기에서 3패 평균자책점 5.60을 기록했다.

좋지 않은 성적에도 MLB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텍사스 구단의 속사정 때문이다.

텍사스 구단은 최근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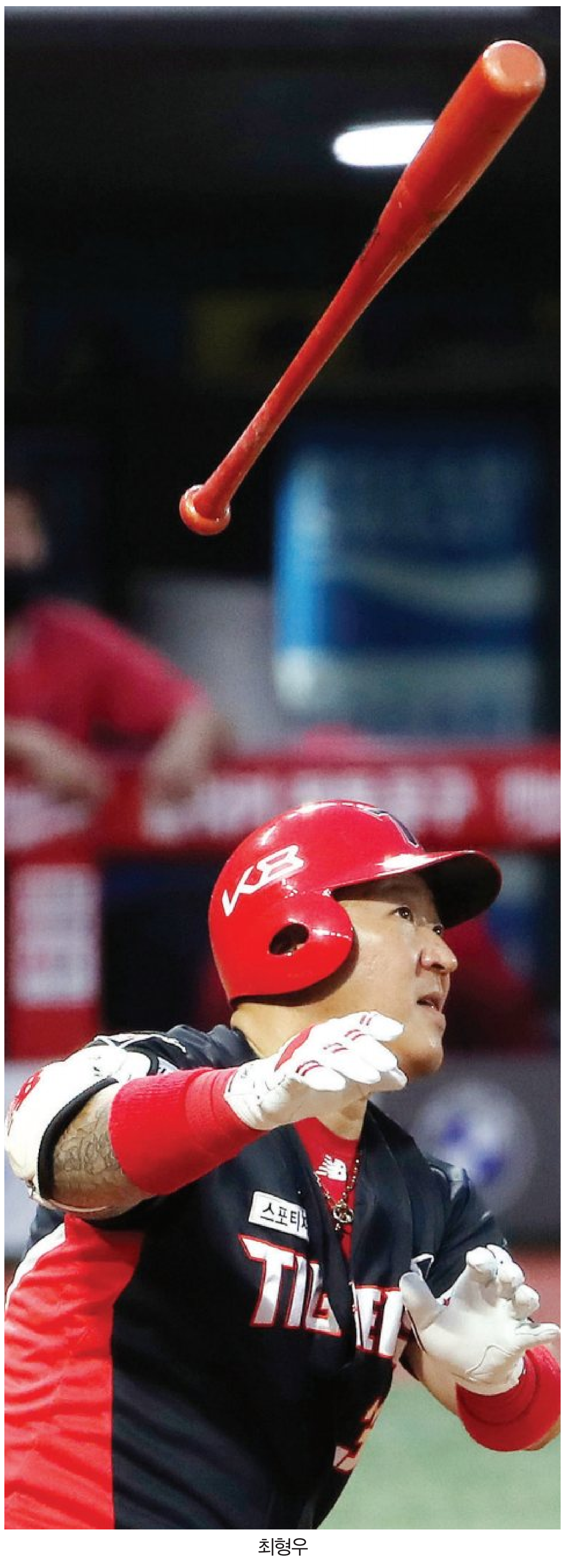
24일 우완투수 드루 앤더슨과 좌완투수 내야수 브록 홀트가 코로나19 여파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25일엔 한국계 혼혈 선수인 데인 더닝과 우완 스펜서 하워드, 포수 요나 하임이 같은 이유로 빠졌다. 선발 로테이션은 완전히 무너졌다.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라츠는 당장 26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28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경기 선발 투수는 비어있다.

양현종의 MLB 입성은 실력이 아닌 팀 사정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기존 선수들의 몸 상태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 마이너리그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 양현종은 사실상 MLB에서 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KIA, 홈런포 살아나나


최형우

후반기 10경기서 9개 홈런 ‘팀홈런 최하위’ 탈출 주목

‘홈런’에 웃고 웃는 후반기다.

긴 휴식기를 끝낸 KBO는 지난 10일 후반기 리그를 재개했다.

예정됐던 올림픽 휴식기에 ‘코로나 사태’로 7월 11일을 끝으로 전반기가 일찍 마무리되면서 한 달이나 리그가 쉬었다. 페이스가 뚝 떨어지는 시기에 휴식기를 보낸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

잘 쉬고 돌아온 타자들의 시원한 ‘한 방’도 이어지고 있다. 팀홈런 최하위 KIA도 후반기 홈런 페이스가 좋다.

13일 SSG전에서 최형우가 팀의 후반기 첫 홈런포를 만들었다. 최형우는 4회 2사 1루에서 가빌리오를 상대로 투런포를 날렸고 8-1 승리의 결승타를 장식했다.

또 이날 류지혁과 김선빈도 담장을 넘기는 등 KIA는 ‘홈런 군단’ SSG를 상대로 홈런 3방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14일에는 김민식이 1-1로 맞선 8회초 우측 담장을 넘기며 홈런 바통을 이어받았다.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나면서 결승타는 기록하지 못했다.

SSG와의 원정 마지막날이었던 15일에는 이창진이 홈런타자가 됐다.

이창진은 0-1로 뒤진 2회초 1사 1·2루에서 폰트에게 역전 스리런을 뽑았다. 마운드 난조로 KIA가 이어진 2회말 바로 리드를 내주고 5-10 패를 기록하면서 이창진은 아쉬움을 삼켰다.

18일 하루 홈런을 쉬었지만 19일 한승택이 두산 원정에서 3-4로 뒤진 7회초 솔로포를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경기는 5-5 무승부로 끝났다.

키움과 안방에서 경기를 한 20일에는 최형우가 결정적인 홈런을 기록했다.

0-2로 뒤진 7회말 최형우가 2사 1루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기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황대인의 안타와 김민식의 역전 2루타가 나오면서 KIA는 3-2 역전승을 거뒀다.

비로 21일 경기를 쉰 KIA는 22일에도 홈런수를 늘렸다.

이번에는 황대인이 힘 자랑을 했다. 황대인은 올 시즌 다승 1위 요키시를 상대로 솔로포를 기록했다. 경기가 1-6 패로 끝나면서 팀의 영봉패를 막은 홈런이 됐다.

24일에는 기다리던 최원준의 홈런이 나왔다. 최원준은 0-4로 뒤진 5회 우측 담장을 넘기며 5월 22일 삼성전 이후 시즌 2호포를 기록했다. 경기는 2-8 패로 끝났지만 최원준은 이 홈런 이후 남은 두 타석에서도 안타를 더하며 모처럼 3안타 경기를 펼쳤다.

KIA는 24일 경기까지 후반기 10경기에서 9개의 홈런을 터트리면서 ‘홈런 가뭄’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홈런에 웃는 날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나오는 피홈런에 진땀도 흘리고 있다.

11일 한화전에서 7-1로 앞선 9회초 불펜의 난조로 급히 출격한 마무리 정해영이 정재훈에게 동점 스리런을 맞았다. 정해영은 14일 SSG 원정에서는 2-1로 앞선 9회말 김강민에게 다시 동점 솔로포를 내주며 두 경기 연속 블론세이브를 기록했다.

15일 SSG전에서는 KIA가 한유섬의 만루포 등 피홈런 3개에 승리를 내줬다. 19일 두산전에서는 박건우의 선제 스리런으로 초반 어려운 승부를 했다.

그리고 후반기 첫 연패가 기록된 키움전에서도 홈런에 울었다.

22일 1-2의 팽팽한 승부에서 7회 박동원에게 스리런을 맞는 등 대거 5실점을 하며 ‘뒷심싸움’에서 졌고, 24일에도 박동원의 멀티포에 승기를 내줬다. 키움 예진원은 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 데뷔 홈런을 남기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